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성과 도덕성 성경:예레미야 42장 1-11절
(Tag:영성,도덕성,구약성경,예레미야,그리스국가부도)

1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7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렘42:1-11)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지구촌의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소식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한데, 개탄해 마지 못할 내용들도 있다. (기자들은 조회수에 민감해서 클릭을 많이 할만한 내용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칭찬 받을 만하고,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고, 든직한 내용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편이다.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며, 비교적 사건 사고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으며,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지 아니하며, 파국으로 치달더라도 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극복하지 못하며, 사건 사고가 잦으며, 병에도 잘 걸리고,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아니하며, 갑작스럽게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한번 어려움에 직면하면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는 비교적 선량하고, 성실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영성과 도덕성이라고 한다. 영성과 도덕성이 잘 발달하는 가정과 사회가 행복을 누리게 되며 선진국이다.

영성과 도덕성은 십계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계명에서 4

계명까지는 영성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성에 관한 계명이다. 성경은 영성과 도덕성을 따로 떼어놓고 따로 따로 다루지 아니한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나,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도덕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도덕과 법으로 구분하고 오로지 법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된다.

법과 도덕은 선을 그을수는 있어도 담장을 지를수는 없으며, 도덕성의 보호가 없이는 법도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놀랍게도 요즘은 범인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기 보다는 경찰들이 범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오히려 용의자의 인권이다, 용의자의 사생활 침해는 할 수 없다, 용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해서 법을 어긴 자들이 더 당당하다. 범인들은 거짓말을 맘대로 지어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일일이 증명하려면 쉽지가 않다.

도덕성이라는 울타리가 망가진 사회는, 그 울타리 안에 아무리 그럴 듯한 법이라는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도 그 법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도덕성이 망가진 사회는 범법행위를 막아낼 보호막을 상실한 사회일 뿐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위한 권리 정도로 이해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도덕적 타락을 은폐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식의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이 없는 법은 영혼 없는 시체에 불과하다.

법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도덕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도덕성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과 도덕은 가까이에서 보면 구별되어 있지만, 멀리서 보면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성에 의해서 사람 구실을 한다. 평상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이 가장 큰 경찰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비슷한 논리가 영성과 도덕성 사이에도 적용된다.

도덕성이라는 복숭아에는 영성이라는 씨가 들어가 있다. 도덕성에 가치과 힘을 부여하고 소위 도덕적 삶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 주는 것이 영성이다.

흔히들 영성은 멀리하고 도덕적인 생활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는 휘발유만으로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려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

매니아가 아닌 이상,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기 보다는 항상 휘발유가 소진되지 않았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당신이 도덕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영성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다.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생각, 말, 믿음, 꿈, 환상 등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믿거나, 나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헤깔려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성

경적인 영성은 아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성은 철저하게 인격적이다.

인격적 영성이란? 즉, 오직 사람에게만 영성을 요구하고 거룩성을 요구하고, 책임이 포함된 관계성(가족성-생명의 가치를 포함한)을 요구한다.

성경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격적 영성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왜냐면 아무도 영원한 생명(영생, 조예)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외의 영성들은 영적인 현상들만 다룬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항상 우주의 원리에서 찾는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가볼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영성의 소스를 가져오는데(결국은 가져오는 척을 할 뿐) 결론은 이원론에 불과하고 선악의 논리로 귀결되며 버젓이 악이 가장 선하다는 헛소리가 나온다.

개신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영성에 있는데, 이 영성이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만인제사장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성과 도덕성이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낸다. 영성과 도덕성의 바로미터는 낮게는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고, 높게는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

각자는 자신의 영성과 도덕성에 책임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영성과 도덕성에 책임이 있다.

자신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영적, 도덕적 영향력이 상실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

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는 망했고,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들에게 남겨진 자는 원래부터 무시당하던 예레미야 뿐이다. 그가 외쳤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인정받아야 마땅하나, 세상은 온통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영성과 도덕성은 메말랐다. 왕의 사촌을 총독으로 세웠으나 그 총독의 친척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총독을 암살하게 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는 애굽으로 피난하려고 하는 마당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

그러나 영성과 도덕성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하고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고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아 다시 팔레스티노스로 돌아간다.

역사 이래로 나라는 영성과 도덕성 위에 서게 되며, 이 두가지를 상실한 나라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민족도 다른 민족들과 섞여 없어지고 그 말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